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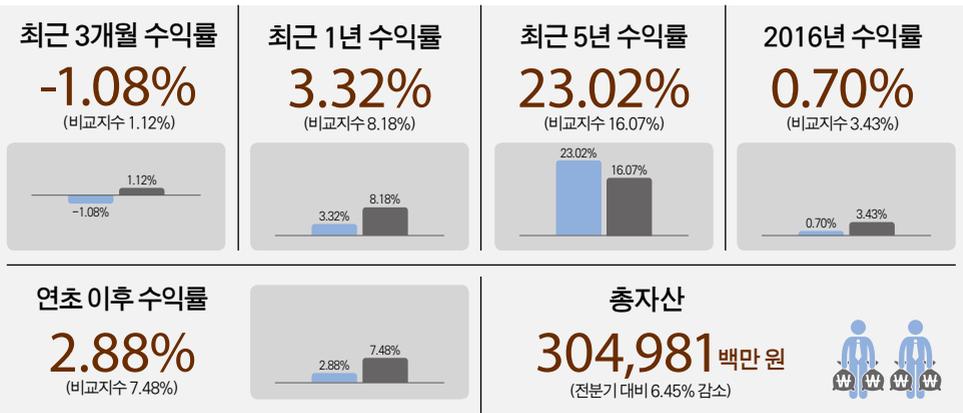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식 편입비가 30% 이하인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 기업의 본질적 내재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 저위험 적정 수익을 추구합니다.

최초 설정일 | 2006.04.18 | 운용 기간 | 2017.07.18~2017.10.17



위 수익률은 가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

1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는 최근 결산일(2017년 4월 17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할 연 환산 표준편차가 2.83%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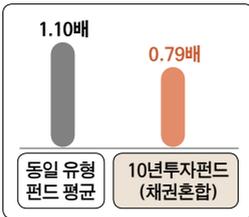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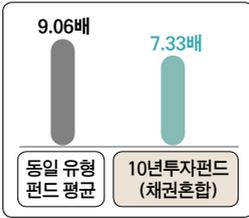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9~2017.08)
 ※ 동일유형펀드 채권혼합 공모펀드(주식 등 위험 자산 편입비율 평균 15~40%로 운용하는 국내 혼합형 펀드)

Vol.46
2017.07.18~
2017.10.17

달의 이면

인류학의 대가 레비-스트로스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달의 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부 종목의 엄청난 상승세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이 좋은 주식을 엄청 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장의 분명한 진실입니다. 저희는 그 진실을 묵묵히 좇아 가치투자자의 새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기 가치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이채원 CIO와 이승혁 자산운용3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꾸준히 이익 성장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가치투자 이어갈 것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운용 기간 (2017.07.18~2017.10.17) 동안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1.08%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비교지수 수익률 1.12% 대비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IT 대형주에 편중된 상승세 이어진 주식시장

이번 분기 주식시장은 핵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긴장감이 증폭되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돼온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진 기간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재벌 개혁 정책 등이 발표되면서 규제에 대한 우려로 내수 업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수출 업종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T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 업종보다는 내수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IT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한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KOSPI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대형주입니다.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이들이 업황 최고조 국면에 가까워진 실적 성장 대형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높은 이익 변동성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권 금리 소폭 상승 속 채권시장은 약세

다음으로는 이번 분기 채권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금리 인상 우려로 전분기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국고채 3년 금리는 전분기 대비 0.19%p 상승한 1.89%,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분기 대비 0.19%p 상승한 2.41%로 마감했습니다.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격차는 7월 초 0.54%p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부터 폭이 다시 좁혀져 결국 전분기 말과 비슷한 0.52%p로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자 2분기보다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제어하며 듀레이션을 중립적으로 운용했습니다.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내실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

다음으로 주식 부문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양극화가 깊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소외된 주식을 선호하는 역발상 투자자에게는 힘든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는 못했지만 뒤늦게 흐름에 참여하기보다 포트폴리오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형주나 중소형주나를 따지기보다는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경기 전망에 기반한 업종 배분 전략보다는 투자 종목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금리 변동성 제어하며 안정적 채권 운용

마지막으로 채권 부문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기 채권 금리는 연말을 앞두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완만하

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 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내수 경기 부진, 부동산 경기 하향, 북한 리스크 등의 문제로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연말 분위기로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채권 금리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금리 변동성을 통제하며 듀레이션을 중립적으로 운용하고, 저평가 종목을 편입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IO 이채원
자산운용3본부장 이승혁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펀드**입니다.
- 펀드 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채권혼합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KDB생명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56288
클래스 A	AE273
클래스 C	AE245
클래스 C-P	AH290
클래스 S	AP748
클래스 C-W	AR355
클래스 C-E	AS482
클래스 A-E	BG296
클래스 C-Pe	BG30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KEB하나은행	신한아이티스

- **공지 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프로 보는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7.17)	금분기 말(2017.10.17)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모)	자산 총액	326,001	304,981	-6.45
	부채 총액	2,260	2,443	8.12
	순자산 총액	323,741	302,538	-6.55
	기준 가격	1,037.70	1,026.46	-1.08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A	기준 가격	1,026.21	1,012.78	-1.31
클래스 C	기준 가격	1,020.91	1,006.48	-1.41
클래스 C-P	기준 가격	1,021.99	1,007.78	-1.39
클래스 S	기준 가격	1,029.10	1,016.20	-1.25
클래스 C-W	기준 가격	1,045.78	1,033.34	-1.19
클래스 C-E	기준 가격	1,027.05	1,014.13	-1.26
클래스 A-E	기준 가격	1,042.23	1,029.39	-1.23
클래스 C-Pe	기준 가격	1,038.98	1,025.60	-1.29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좌수)×1000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2017.07.18~ 2017.10.17	최근 6개월 2017.04.18~ 2017.10.17	최근 9개월 2017.01.18~ 2017.10.17	최근 1년 2016.10.18~ 2017.10.17	최근 2년 2015.10.18~ 2017.10.17	최근 3년 2014.10.18~ 2017.10.17	최근 5년 2012.10.18~ 2017.10.17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1.08	1.82	2.95	3.32	2.95	8.72	23.02
(비교지수 대비 성과)	(-2.20)	(-3.37)	(-3.67)	(-4.86)	(-7.67)	(-4.54)	(6.95)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16.07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1.31	1.38	2.28	2.41	1.12	5.92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43)	(-3.81)	(-4.34)	(-5.77)	(-9.50)	(-7.34)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
클래스 C	-1.41	1.16	1.95	1.98	0.29	4.57	15.51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3)	(-4.03)	(-4.67)	(-6.20)	(-10.33)	(-8.69)	(-0.56)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16.07
클래스 C-P	-1.39	1.19	2.01	2.07	0.46	4.80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51)	(-4.00)	(-4.61)	(-6.11)	(-10.16)	(-8.46)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
클래스 S	-1.25	1.47	2.43	2.63	1.60	6.79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7)	(-3.72)	(-4.19)	(-5.55)	(-9.02)	(-6.47)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
클래스 C-W	-1.19	1.83	3.95	4.21	3.43	12.51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1)	(-3.36)	(-2.67)	(-3.97)	(-7.19)	(-0.75)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
클래스 C-E	-1.26	1.43	2.35	2.50	1.32	6.48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8)	(-3.76)	(-4.27)	(-5.68)	(-9.30)	(-6.78)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10.62	13.26	-
클래스 A-E	-1.23	1.64	2.78	3.21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5)	(-3.55)	(-3.84)	(-4.97)	-	-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	-	-
클래스 C-Pe	-1.29	1.40	2.33	2.56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41)	(-3.79)	(-4.29)	(-5.62)	-	-	-
비교지수	1.12	5.19	6.62	8.18	-	-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 [(KOSPI200×27%)+(ICD금리×73%)]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시적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투자 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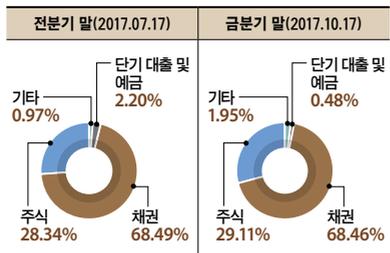
구분	주식	채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9,191	831	26	-5	10,043
금분기	-3,687	285	23	-5	-3,384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채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88,780 (29.11)	208,786 (68.46)	1,469 (0.48)	5,947 (1.95)	304,981 (100.00)

•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1. 주식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SK우	28,000	4,872	1.59	4.95
광주신세계	19,000	4,475	1.46	1.19
메리츠금융지주	275,000	4,235	1.38	-
SK	14,000	4,228	1.38	-
삼성전력	52,000	2,288	0.75	2.08

2.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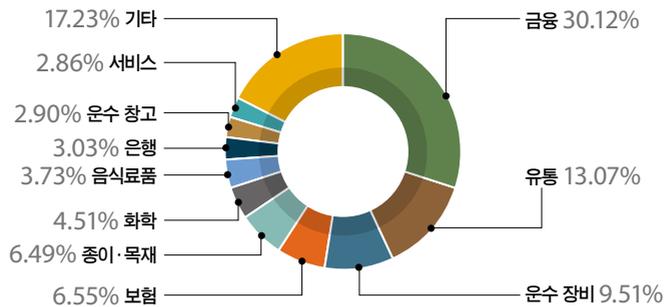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000-2209(17-4)	11,900	11,845	2017.09.10	2022.09.10	-	RF	3.88
국고채이자0409-2012	6,500	6,106	2010.01.27	2020.12.10	-	RF	2.00
신한은행20-07012B	6,000	6,000	2016.07.25	2018.07.25	-	AAA	1.97
국고채이자04220-1906	5,500	5,341	2010.01.27	2019.06.10	-	RF	1.75
씨제이제일제당21-1	5,000	5,000	2016.02.26	2019.02.26	-	AA0	1.64
국민은행370501표일(03)3-22	4,500	4,487	2017.05.22	2020.05.22	-	AAA	1.47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비고 (보유주수÷총발행주수)×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금융업, 유통업 비중 줄고 은행채 비중 확대

이번 분기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업과 유통업 비중이 직전 분기에 비해 모두 줄었습니다. 금융업은 직전 분기 32.68%에서 30.12%로, 유통업은 13.64%에서 13.07%로 각각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주식 보유 상위 종목에는 LG하우시스 우선주가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권 부문에서는 비중이 낮았던 은행채의 경우 최근 발행 물량이 늘고 가격 측면에서 매력력이 커져 비중을 늘렸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7.17)		금분기 말(2017.10.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모)	자산운용회사	322.49	0.10	299.63	0.10	
		클래스 A	92.49	0.13	84.83	0.13
		클래스 C	388.24	0.22	347.98	0.23
		클래스 C-P	178.93	0.20	179.13	0.20
		클래스 S	1.26	0.06	1.23	0.06
		클래스 C-W	-	-	-	-
		클래스 C-E	1.50	0.11	1.37	0.11
		클래스 A-E	0.00	0.06	0.02	0.06
		클래스 C-Pe	0.02	0.10	0.03	0.1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25.46	0.01	23.66	0.01
	일반사물관리회사	11.88	0.00	11.04	0.00	
	보수 합계	1,022.27	0.99	948.91	1.00	
	매매 중개 수수료	기타 비용	6.40	0.00	6.03	0.00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11.10	0.00	9.81	0.00
조사 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4.62	0.01	21.65	0.01	
합계		35.72	0.01	31.47	0.01	
증권거래세		76.03	0.02	44.84	0.01	

•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균) 대비 비율.
• 보수 합계는 4대 보수의 단순 합계임(판매회사 보수는 전클래스 보수가 합산됨). 클래스별 가입자는 가입 시 명시된 보수 합계에 따릅니다.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전분기	0.01	0.04	0.05
	금분기	0.01	0.04	0.0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전분기	0.93	-	0.93
	금분기	0.93	-	0.93
클래스 C	전분기	1.33	-	1.33
	금분기	1.33	-	1.33
클래스 C-P	전분기	1.23	-	1.23
	금분기	1.23	-	1.23
클래스 S	전분기	0.68	-	0.68
	금분기	0.68	-	0.68
클래스 C-W	전분기	0.42	-	0.42
	금분기	0.42	-	0.42
클래스 C-E	전분기	0.88	-	0.88
	금분기	0.88	-	0.88
클래스 A-E	전분기	0.66	-	0.66
	금분기	0.67	-	0.67
클래스 C-Pe	전분기	0.82	-	0.82
	금분기	0.82	-	0.82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타내는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타내는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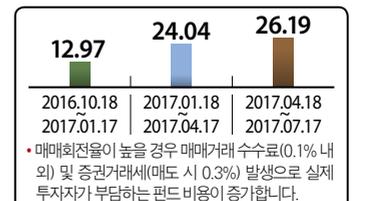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을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 기간	연 환산
676,008	14,970	486,136	14,951	16.60	65.86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 16.60%로 직전 분기보다 낮아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은 16.60%로 직전 분기 26.19%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수 금액은 늘고, 매도 금액은 감소했습니다. 가치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양극화로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커진 우량 종목의 경우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황 기간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는 어떻게 변했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기간 동안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 자료 '우리나라 투자자의 펀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펀드 투자자 조사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펀드 투자 규모는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펀드 설정액은 금융 위기 이후 2009~2011년 약 60조 원 이상 감소해 298조 원까지 떨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인 펀드 투자자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1 금융 위기 겪으며 안정형, 안정 추구형 성향 높아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펀드 투자자 조사'의 연도별 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펀드 투자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2013년 38.7%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8.7%까지 떨어졌고,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6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현재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은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과 이후인 2011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 사이에 매우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적극 투자형이라고 답한 투자자가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1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안정 추구형이라고 답한 투자자가 크게 늘어 각각 36.7%,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 위기 이전 시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투자보다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했으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에 민감해졌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011년	2016년
안정형	24.9	38.6	33.3
안정 추구형	27.4	36.7	42.2
위험 중립형	38.8	12.3	14.2
적극 투자형	8.9	9.1	7.4
공격 투자형	8.9	3.3	2.9

주) 2007년 조사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 질문을 네 가지로 분류해 안정형과 안정 추구형을 하나로 묶음.

2 나이, 직업, 위험 추구 성향 영향력 등 금융 위기 거치며 변화

또한 나이, 직업, 위험 추구 성향이 펀드 투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위기 기간이 포함된 2007~2011년에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펀드 투자를 안 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이는 2007년 결과에서만 그렇게 나타났을 뿐 2011년부터는 연령과 펀드 투자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는 직업이 펀드 투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학생, 주부 등보다는 펀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학생이나 주부 등보다 펀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7년과 2011년, 2016년 모두에서 위험 성향이 안정적인 사람보다는 위험에 중립적,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자가 펀드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험 중립형은 2007~2011년에 상승했다가 2011~2016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위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재! 뉴스스크랩북

2017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8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01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ISA는 노후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인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대상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일정 금액까지의 금융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합니다.

현재 일반형(총급여 5,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초과)과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총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ISA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반형은 3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의무 가입 기간 안에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에 인출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ISA를 활용한 비과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03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 구입비·공연비 지출 소득공제 확대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2018년 1월 1일부터),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 원 추가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서 구입비·공연비 지출도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될 예정입니다.

0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를 사는 서민을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연간 75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2%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이 12%로 상향 조정됩니다. 1년에 5,000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12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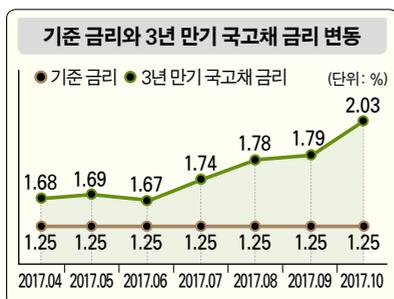
04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입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7.04~2017.10)



· 자료 한국은행(KOSPI-증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